

# 문화적 위선에 도전하는 금기파괴의 인류학

《문화시대의 문화학》 펴낸 전경수 교수

전경수 교수가 펴낸 《문화시대의 문화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을 인류학자의 시각으로 풀어낸 저작이다. 그가 구상하는 '문화학' 개념은 구체적인 삶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수입된 인류학을 넘어서 인류학의 탈서구화 및 토착화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문화개념을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문화는 '삶의 무늬'다. 이 세상에서 그 무늬가 같은 것은 거의 없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설계하고 누리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문명은 하나의 무늬만을 강요한다. 상품이라는 '빅 브라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마저 통제하고 조작하려 한다.

상품이 자본주의 문명의 '구심력'이라면, 문화는 '원심력'이다. 물이 자기만의 동력으로 땅위에 길을 만들어가듯, 문화는 제어하기 어려운 삶의 율동으로 출렁인다. 문화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당한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경수 교수(51, 서울대 인류학과)가 펴낸 《문화시대의 문화학》(일지사)은 문화의 개념으로 우리 삶의 다채로운 무늬(텍스트)를 읽어낸 성과물이다.

## 일상생활과 만나는 문화학

이 책은 지난 1994년 펴낸 《문화의 이해》(일지사, 1999년 개정판)와 짝을 이룬다. 《문화의 이해》가 문화인류학의 중심개념인 문화를 정교화하고 그 방법론을 세운 이론적 저작이라면, 《문화시대의 문화학》은 관광·놀이·성·가족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을 인류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실천적 저작이다.

사실 '문화학'이란 개념은 두명의 학자에게 빛지고 있다. 인류학을 문화학으로 부르자고 제

안한 미국의 인류학자 레슬리 화이트와 문사철(文史哲)의 동양전통을 망라해 문화학을 제창한 중국 사상이 첸무(錢穆)가 바로 그들이다. 특히 첸무는 "문화학은 인생의 의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첸무의 문화학은 동양의 학문전통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대상을 과도하게 분리해 학계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은 학문의 불구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학문의 수입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첸무의 문화학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화학의 대상과 내용이 인간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교수의 문화학이 첸무의 문화학과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문화는 일상에서 출발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란 인간의 모든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문화학은 두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입된 인류학을 우리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전교수에 따르면, 문화학은 문명충돌의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로 인한 냉전구도가 깨지면서 등장한 문명충돌론은 민족과 종교간의 반목과 불화를 부추기고



전경수 교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지적인 전쟁도 이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문명충돌론은 또 다른 종류의 오리엔탈리즘이자 패권적 시각이 담겨 있는 담론이다.

## 문명과 야만의 구도를 넘어서

"원래 문명은 야만의 반대개념으로서 계급적이고 침략적입니다. 18세기 서양의 계몽사상에서 진보한 것은 문명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야만으로 나뉘죠. 따라서 문명론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문화학이다. 전교수가 성과 에로스의 문제를 들여다본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서구 인류학에서 성과 에로스는 금기의 영역으로 간혀버렸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류학도 성과 에로스가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에로스는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이 이뤄내는 극치다. 또한 사랑을 전제로 한 성교이자 성교를 포함한 사랑이 에로스다. 금기의 인류

학이 불완전 제품을 수입한 '너'의 인류학이었다면, 금기 파괴의 인류학은 바로 '나'의 인류학이다. '너'에게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존재가 '너'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우리'의 인류학입니다. 인류학을 토착화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금기파괴가 목표인 '나'의 인류학은 에로스가 인류학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 문화적인 위선을 벗기는 일입니다."

### 한국 가족전통의 창조적 계승

'모두가 하면서도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성의 금기를 파괴하는 것은 문화론의 '탈서구화' 및 '토착화'로 이어진다. '나'와 관련된 금기주체인 성을 주제로 인간관계의 구도를 연구하는 것은 서구중심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성의 문제는 가족과 혼인의 주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연다.

"문화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가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통을 재해석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을 무시하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대합니다."

전교수가 한국가족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3세대 가족의 재구성이다. 핵가족에 따라 등장한 자녀의 성적인 문제, 특히 근친상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3세대 가족에서 찾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가족 전통을 현대적 상황과 접목시키는 일이다.

전교수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가족전통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양식의 성(姓) 만들기를 흉내내는 것이 한가지 사례다. 그것은 서양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이 비판의 이유다.

"전통을 부정하거나 변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모양성을 쓰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이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는 새롭다

는 의미만 있을 뿐 원칙이 없는 선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교수의 문화학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변동으로까지 시야가 확대된다. '정보인류학'이 바로 그것으로, 정보사회 현상을 문화론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마치 경제나 음식을 문화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그의 정보인류학은 '신인본주의'와 '정보자본주의'를 지향한다.

### 신인본주의의 지향하는 정보인류학

신인본주의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상실된 인간으로의 회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회복을 일컫는다. 또한 정보자본주의는 정보화 시대에 인간이 매개된 합리성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상상력을 되살려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타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보기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려는 노력으로 수렴된다.

한편, 새로운 학문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학문 방법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전교수의 문화론은 세가지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한다. 인간문화의 보편성과 맥이 닿는 제일성(齊一性)과 특수성에 기반한 상대성, 그리고 각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일컫는 '총체성'이 관점이라면, 비교연구와 당지(當地)연구(참여관찰),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연구하는 질적 연구가 방법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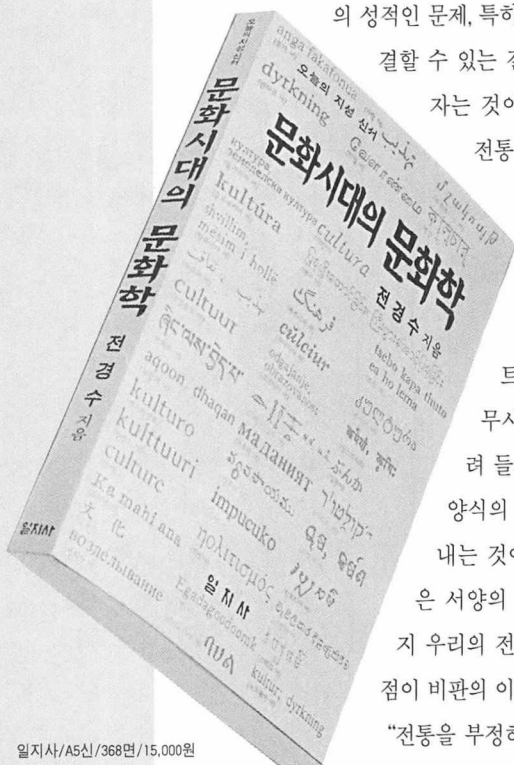
지금까지 전교수가 펴낸 20여권의 저서에 이런 인류학적 시각과 방법론이 관철돼온 것은 물론이다. 특히 《문화의 이해》와 《문화시대의 문화학》은 지난 30여년간 문화인류학을 공부해온 그의 학문적 역량이 집적된 저작들이다. 이제 그는 앞으로 30년간 파고들어야 할 학문주제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할 때 항상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민지시대 문제예요. 반드시 학문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주제입니다. 언제 성과물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전세계의 식민지 현상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일이 앞으로 천착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도 민족주의적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주제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인류학자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일이 그것이다. 오랜 기간 그만큼 밀도 있고 일관되게 기록한 문서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인류학자로서 그가 욕심을 내는 까닭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500년 왕조의 기록을 현대적인 삶의 거울로 비춰보면 풍부한 얘깃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류학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박천홍 기자



일지사/A5신/368면/15,000원